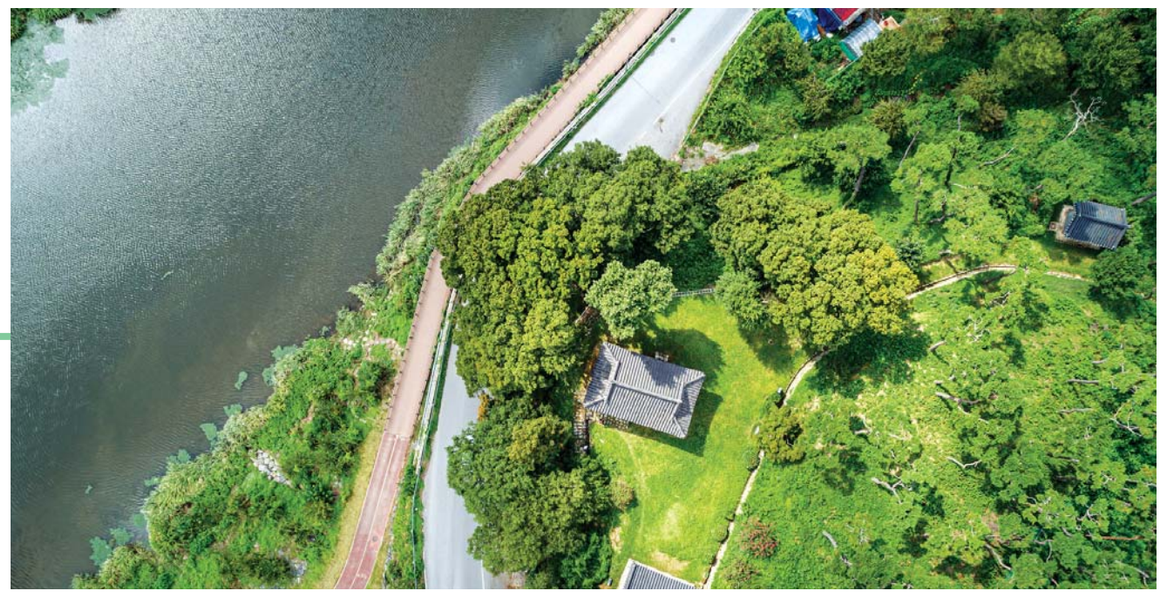
영산강 일대 누정 통해 지역문화를 보다


영산강 자락에는 당대 지역문화가 꽃을 피운 누정이 다수 자리한다. 드론으로 촬영한 광주 광산구 신가동 풍영정. 〈인춘교 사진작가 제공〉

풍영정·호가정·만귀정·부용정·양과동정·양파정·춘설헌

문화재단, 7곳 누정 4권에…현판 번역도 수록

집필진 5명…정보·학문과 함께 느낌·감성 담아

남도에는 지역문화가 응결된 누정이 곳곳에 산재한다. 특히 영산강 자락과 근대문화가 집약된 공간에는 다수의 누정이 자리한다. 이 같은 누정은 강학과 교유, 은일의 장소뿐 아니라 공동체 규약을 실천하는 집회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영산강 일대의 누정과 근대 이후의 누정을 다룬 책이 발간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풍영정, 호가정, 만귀정, 부용정, 양과동정, 양파정, 춘설헌 7곳의 누정을 갈무리한 누정 총서 4권(심미안)의 책을 펴냈다. 지난해 1~6권까지 무등산 자락의 원림과 누림을 다뤘다면 올해는 영산강변과 근대 이후 누정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집필진은 모두 5명이 참여했다. 각각의 저자들은 풍영정(7권, 광주일보 박성천기자), 호가정·만귀정(8권, 박명희 전남대 국문과 강의교수), 부용정·양과동정(9권, 김희태 전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양파정·춘설헌(10권,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을 딱딱한 정보나 학문 위주의 글이 아닌 느낌과 감성이 담긴 부드러운 필치로 풀어냈다. 각각의 누정 현판은 김대현 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번역자로 참여해, 현판 본래의 뜻을 당대와 오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책에는 누정에 얽힌 인물과 배경, 작품, 공간적 관점에서의 조경의 특성 등이 오롯이 담겨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 저자들이 직접 답사하고 취재하며 느낀 인문학의 감성과 시대정신, 지역 문화도 적절히 수록돼 있어 여행서 길잡이로도 손색이 없다.

이번 총서에는 명필 한석봉이 '제일호산'(第一湖山)으로 칭한 김언거(1503~1584)의 풍영정, 명리를 탐하지 않고 산수간에 들어 호연(浩然)의 노래를 부른 유사(1503~1571)의 호가정, 늘그막에 전원으로 돌아가 풍류를 즐긴 장창우(1704~1774)의 만귀정이 수록돼 있다.

또한 조선시대 광주 향약이 처음 시작된 김문발(1358~1418)의 부용정, 향약 시행처로 주목을 받은 최형한(?~1504)의 양과동정, 도심 속 은일의 공간이자 광주 근대의 역사를 품은 정낙교(1863~1938)의 양파정, 묵향의 그윽한 향과 삼애 정신이 깃든 허백련(1891~1977)의 춘설헌까지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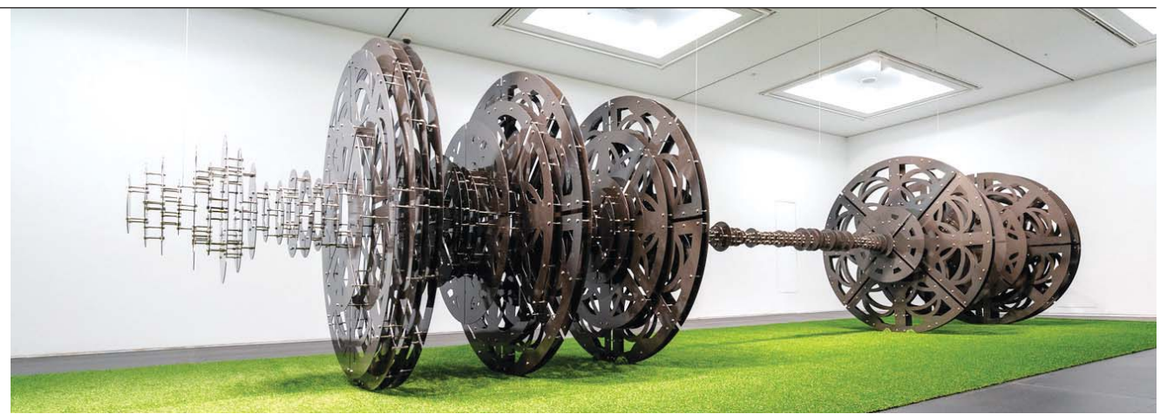
한편 이번 책들 말미에는 여행팁이 수록돼 있어 누정을 찾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전고필 책방 '이목구심서' 대표가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누정에 대한 짤막한 글도 당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진작가 인춘교가 담아낸 각 누정들의 아름다우면서도 감성 넘치는 사진도 보는 맛을 더해준다.

이번 총서를 기획한 김윤기 대표이사는 "근대도시 광주가 확장과 팽창을 거듭하며 영산강은 광주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류가 됐고 지리적으로 확장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번 누정 총서를 통해 영산강 문화권과 근대 이후의 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형상화 된 소리

신호윤 초대전, 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신세계갤러리 신호윤 초대전에 전시된 '20분40초 _wav'.

신호윤 작가가 트레이드 마크인 '종이'를 버렸다. 작품 소재로 삼았던 부처, 피에타 등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서도 벗어났다.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종이로 노동집약적인 작품을 만들어온 그가 이번에는 정반대 이미지의 차갑고 강한 '철'을 선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신호윤의 신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Visualized Sound'가 오는 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지난 199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작가 초대전으로 마련됐다. 2015년 "요즘 보기 드문 작가의 집요한 작업과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조각적 형태를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한 그는 '수상한 꽃', '본질은 없다', '군도' 연작을 통해 고유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대형 입체 설치 작품 3점은 기존 작품 스타일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고민을 오롯이 보여준다. 신 작가는 '몇가지 상황'에서 얻은 소리를 추출해 음향 프로그램에 넣은 후 여기서 얻어지는 파동의 길이를 지름으로 환산,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이어붙여 마치 하나하나 조각하듯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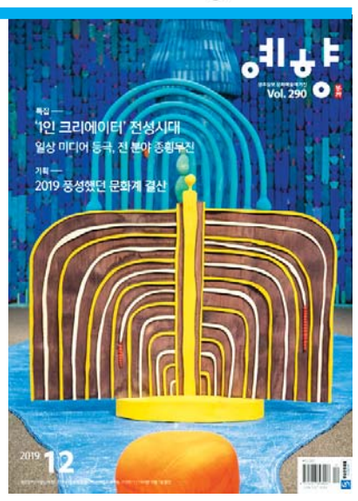
전시장 내부에는 철로 작업한, 파동 형태의 단 한점의 작품 '20분40초 _wav'가 놓여있다. 작품 제목 '20분 40초'는 박근혜 탄핵문을 이정미 판사가 읽어나간 시간이다. 또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80초'는 세월호 첫 속보 시간이며 '10분 44초'는, 작가가 상해임시정부를 찾아 머문 시간의 길이다. 작업 재료로 철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건 마치 공기와 같아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를 이미지로 형상화시켰을 때, 가볍지 않은 존재감과 힘과 무게를 명확히 표현하고 싶어서였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건과 역사적 공간, 그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문제들을 소리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형상화해 실제와 허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선대에서 조소과를 전공한 신 작가는 이탈리아 'Lucca Paper Biennale Lifetime Achievement Award',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전시장에서는 작업과 인터뷰 영상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예향 12월호



'1인 미디어 시대, 나도 크리에이터'

유튜브(YouTube) 전성 시대다. 동영상 플랫폼의 활성화에 따라 '1인 크리에이터'(미디어 제작자)가 각광받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업로드 하는 창작자인 '1인 크리에이터'는 초등학생들이 미래 직업으로 생각하는 인기 직종 중 하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월간 '예향'은 12월호 특집 '1인 미디어 시대, 나도 크리에이터'를 통해 10·20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예향이 초대한 예술인은 우리 감성으로 무르익은 소리꾼 장사익이다. 불혹이 넘은 나이에 세상에 나온 장사익은 노래보다 인생을 먼저 배웠다. 가슴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소리에는 인생의 봄·여름·가을·겨울이 담겨 있다. 올해로 노래 인생 25년을 맞은 그를 만나 '치유의 노래' 이야기를 들어본다.

어느덧 2019년 달력 마지막 장을 남겨두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과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생기는 한달이기도 하다.

송년 기획 '풍성했던 2019 문화계 결산'과 '안녕 2019,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준비했다. 2019년 광주·전남 문화계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져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시립미술관의 다양한 기획전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공연계는 클래식의 많은 별들이 남도를 찾은 한 해였다. 문학계에서는 조정래문학상 제정과 지역 작가들의 연이은 문학상 수상 등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싸목싸목 남도 한바퀴'는 겨울여행을 계획중인 독자들을 위해 힐링과 휴양, 다채로운 해양콘텐츠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보성으로 안내한다. 정유년 조선수군 재건에 나선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좇아보고 시골의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득량역과 강골마을을 둘러본다.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보성의 대표 특산물 녹차와 참다래도 소개한다.

'클릭, 문화현장'의 두 번째 주인공은 담양 원도심에 자리한 해동문화예술촌이다. 지난 6월 문을 연 해동문화예술촌은 1960년대부터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해온 해동주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담양군이 담빛예술창고와 더불어 문화브랜드로 강력히 '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광주 예술의 거리에 새롭게 문을 연 문화플랫폼 '미로센터'와 김수영 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서울 김수영문학관, 2020년 2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공작인: 현대조각과 공예 사이'전을 소개한다.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명예 센터장인 가수 하춘화와 K리그2 2019시즌 우승을 이끈 광주FC 박진섭 감독과의 인터뷰도 담았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